

조선후기 익산 정보 총망라

익산시가 조선후기 여산과 함열, 용인의 역사와 문화 등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익산문헌자료총서2 '여산·함열·용안 읍지' 번역서를 발간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번역서는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소장 이의강)와 함께 작업했으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행정, 지리, 군사 등의 정보가 총 망라돼 있다.

지난해 '금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여산·함열·용안 지역의 세 읍지는 조선 정조 때 편찬하고자 했던 '해동여지통제'에 포함되었던 읍지로 필사본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저작 시기가 가장 빠르다.

이들 세 읍지의 저작 시기는 읍지에 실려 있는 수령 명단인 선생안 등 자료를 살펴볼 때 용안읍지 정조14년(1790), 여산읍지 정조15년(1791), 함열읍지 정조16년(1792) 무렵으로 보이며 당시 수령에 의해 작성된 관찬지리지의 성격을 지닌다.

관찬지리지는 나라가 주도해 지리지를 편찬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각 도에 지침인 사목(事目)을 내려보내 각 지방에서 각 항목인 편목을 지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관의 의지에 따라 내용이나 항목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례로 세 읍지의 항목 수는 여산읍지 42항목, 함열읍지 35항목, 용안읍지 41항목으로 차이가 난다.

이들 항목 중 일반 행정과 관련된 건치연혁, 군명, 관직, 방리, 도로, 공해, 선생안 등의 7항목과 재정, 경제와 관련된 항목인 제



여산·함열·용안 읍지 번역서 발간... 지역 역사 문화·행정 등 정보 담겨

인, 장시, 물산, 진공, 상남, 호구, 전충, 전세, 대동, 균세, 병률, 요역, 창고, 조적, 노비의 15항목, 군사와 관련된 성지, 봉수, 교량, 역원, 군기, 군역 등 6항목 등은 세 읍지가 똑같이 작성돼 있다.

특히 재정, 경제와 관련된 항목은 충실히 작성되어 당시 각 지역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정조(正祖)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들 세 읍지의 차이점은 교육이나 문화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용안읍지에서는 산천 항목에서부터 관련된 수많은 시(詩)를 실고 있으며 객사 중수기, 군사정의 건축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고 여산 읍지에서도 팔괘정(八卦亭)에 대한 기문(記文)과 함께 여러 명사(名士)들의 시(詩)가 실려있다. 함열읍지에는 시문(詩文)과 관련된 제영(題詠)이 한편도 실리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들 세 읍지에는 수령의 이름과 부임, 이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선생안이 실려있어 지역의 정보를 얻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호구(戶口)나 전총(田總) 등의 인구, 재정과 관련된 자료들도 수록되어 당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료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인물 항목을 충신과 효자, 열녀의 세 분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당시에 충(忠)과 효(孝)와 열(?)에 대한 교화적인 면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번역서는 여산·함열·용안 지역 세 읍지의 번역문과 탈초한 원문을 함께 수록하였고 이들 세 읍지의 원문을 읽고 싶은 독자를 위해 영인본도 함께 실었다.

특히 번역문에 정보를 좀 더 얻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주석을 붙여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자 하였으며 가급적 현대적인 문어로 간결하게 번역해 누구나 쉽게 도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현을 시장은 "향후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를 전해주는 선현들의 문헌자료를 발굴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가치를 널리 알 수 있도록 고문서 번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신간도서

피지배자 전통음식의 '역제국주의'

남원상 '지배자의 입맛을 정복하다'

2017년 케이트 밀턴 영국 왕세손비가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왕궁 일상을 말하다 커리를 자주 주문해 먹는다고 말했다. 같은 해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2인자인 플로리안 필리포 당 부대표가 한 회식 자리에서 쿠스쿠스를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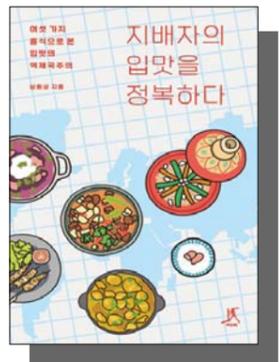
그때 커리는 왕실가족이 먹는 서민음식이라서, 쿠스쿠스는 인종차별에 기반한 반이민 정책의 정치인이 하필 그 이민자의 음식을 먹어서 화제가 됐다.

결국 쿠스쿠스는 필리포를 사임하게 했다. 쿠스쿠스의 재료는 세몰리나인데, 이 세몰리나에 따뜻한 소금물을 넣고 반죽한 뒤 손으로 비벼가며 좁쌀 크기로 동글게 빚은 다음 말린다.

이 음식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에서 프랑스로 옮겨 갔다. 일찍이 신대륙 정복에 뛰어든 지만 스페인, 영국에 밀린 프랑스가 그 대안으로 눈을 돌린 지역이 북아프리카였다. 북아프리카로 이주했다 돌아온 자국민의 입맛으로 인해, 또한 혼란한 정치상황을 피해 일 자리를 찾으러 온 북아프리카 난민 의해, 프랑스는 유럽 전체 쿠스쿠스 소비량의 43%를 먹고 있다.

커리는 해가 지지 않는 식민지를 건설했던 대영제국으로 유입된 음식 중에서 빅토리아 여왕이 전속 요리사를 둘 정도로 영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영국은 각 가정에서 제각각의 향신료를 써서, 제각각의 방식으로 즐기던 음식에 커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몇몇 향신료를 배합해 커리 파우더로 상품화했다.

이제 커리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제각각으로 즐기는 음식됐다. 그래도 그 재료인 향신료가 인도에서만 나기 때문에 커리의 인



도의 인장은 강렬하게 남아 있다

'지배자의 입맛을 정복하다'는 이 음식들을 비롯해 보르시, 굴라시, 사테, 명란젓 등 음식 67가지의 사연을 다룬다. 어느 음식이든 사연이 하나는 있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음식들 사연은 남다르다. 한 민족의 전통음식이었던가, 식민지의 비천한 음식으로 전락했다가 지배자의 식탁에 일상적으로 오르 음식이 된 여정 때문이다.

저자는 피지배자의 전통음식이 지배자의 식탁으로 역으로 침투한 이 현상을 '음식의 역제국주의'로 명명했다. 어떤 음식은 바로 옆 나라로 스며들었고 어떤 음식은 대양과 대륙을 넘어 이동했는데, 그 시기와 맥락이 다른 만큼 각국에서 받는 취급도 다르다.

서로 다른 자초지종을 지닌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피지배 국가나 민족의 하층민이 즐겨 먹던 싸구려 먹거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남원상 지음, 324쪽, 펴비, 1만8000원. /뉴시스

고단한 사람들에게 기운을 전달해주는 '행복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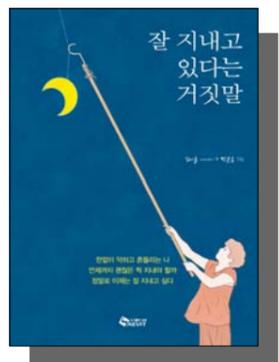
김이를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말

이 책은 위로와 공감의 작가 김이율이 힘들고 흔들리고 고단한 이들의 마음에 좋은 기운을 전달해주는 행복처방전이며 희망의 선물이자이다.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건 바로 가까운 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비답이 분다.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다 걸어야 한다. 한 번 쉬게 되면 조금 가다 또 다시 쉬고 싶고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그러다 끝내는 마음의 엉덩이를 바다에 내려놓고 만다.

작가는 "조금만 더 가면 곧 당도할 거라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아도 어찌됐든 걸어야만



다. 걸음을 멈추는 순간, 미래가 멈추고 인생이 멈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운을 그림, 256쪽, 새빛, 1만4000원. /뉴시스

코로나19 극복 예술인 특별 창작활동비 지원 공모

군산시, 도서 발간 200만원

미술·사진 전시 250만원

국악·무용 등 500만원 한도

24~28일 문화예술과로 방문 신청

군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창작활동비 지원사업을 공모하며 지역 예술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활동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독려하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창작활동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창작활동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지역예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도서 발간 200만원, 미술(서예)·사진 전시 250만원, 국악·무용·연극·연예·음악·영화 등 공연 500만원 한도로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공모에 선정된 전시 및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주소와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군산시 문화예술과(063-454-3283)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두양수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예술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공영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